

도서관인의 명암(明暗)

미국 도서관의 상호대차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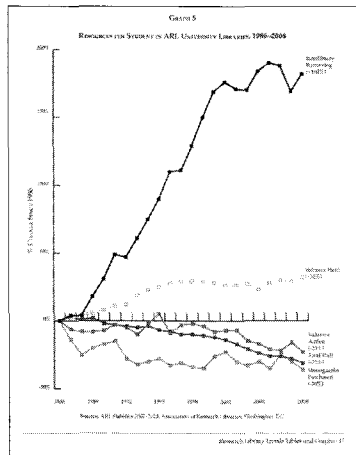
배 승 일

미국 컬럼비아대학교도서관 상호대차담당과장
sb3275@columbia.edu

학자들이 펴내는 학술 서적은 물론이고 픽션 작가들의 작품과 각종 논픽션까지 미국에서 출판되는 많은 책들을 보면 본문에 앞서 그 책을 펴내는 일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원고를 읽고 조언해준 동료들이나 지원을 보내준 가족들과 함께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도서관 사서들이다. 그 중에서도 자주 인사를 받는 사서들이 상호대차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인데 때로는 실명까지 거론하며 감사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도서관, 특히 대학 도서관의 존재 이유가 그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연구

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연구 지원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부서 중 하나가 바로 상호대차(Interlibrary Loan) 부서이다. 역사상 어떤 도서관도 이용자들의 정보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장서를 구비하지는 않았었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호대차업무가 연구 지원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전자 자료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 형태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



▲ 1986년에서 2008년 사이의 상호대차 증가를 보여주는 ARL의 통계

래서 대출과 참고봉사서비스의 이용이 줄어드는 반면 전자자료의 이용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미국대학및연구도서관협회(ARL)의 통계자료를 보면 대출이나 참고봉사처럼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 중 하나인 상호대차의 이용건수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특이한 현상이 보인다. 전자저널과 각종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들이 본격적으로 도서관에 도입되면서 상호대차를 이용해서 자료를 신청하는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실재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각종 온라인 참고 도구들을 이용해 더 많은 관련 자료를 발견한 이용자들이 그 자료를 상호대차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신청건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신청하는 자료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미국의 도서관들, 특히 대학도서관들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호대차서비스를 몇 가지 특징을 짚어보면서 최근의 상호대차서비스 동향과 그 배경을 한국의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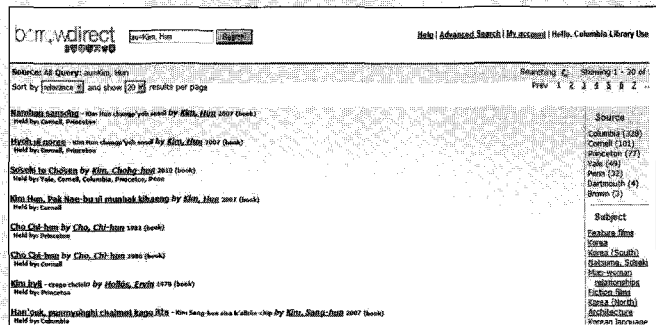
계층화된 네트워크

가장 일반적인 상호대차 네트워크는 OCLC Worldcat을 통해 제공되는 자원공유(Resource Sharing) 네트워크이다. 지난 2005년에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Passport 프로그램에서 웹기반의 시스템으로 옮겨온 OCLC 상호대차 시스템은 현재 가장 많은 도서관들이 참여하는 상호대차시스템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도서관들도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자료를 주고받는데 그 참여 도서관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OCLC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혹은 기관의 성격별로 따로 컨소시엄을 맺고 자체적인 자원공유 시스템을 운영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필자가 일하고 있는 컬럼비아대학은 브라운, 다트머스, 예일,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프린스턴대학 등 이른바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참여하는 바로우 디렉트(Borrow Direct)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컨소시엄 참여 도서관의 이용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6개 대학도서관의 목록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고 검색과 동시에 자신이 필요한 자료를 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분명 상호대차 서비스의 일종이기는 하나 OCLC의 네트워크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서비스이고 이와 유사한 자원공유 네트워크가 미국 내에는 많이 있다. 오하이오주의 모든 공공, 대학 도서관들이 참여하는 오하이오링크(OhioLink) 나 미주리주의 도서관들 사이에서 맺어진 모비우스(Mobius) 컨소시엄 등이 또다른 예라 할 수 있다.

필요한 자료의 성격에 따라 만들어진 컨소시엄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을 중심으로 하여 의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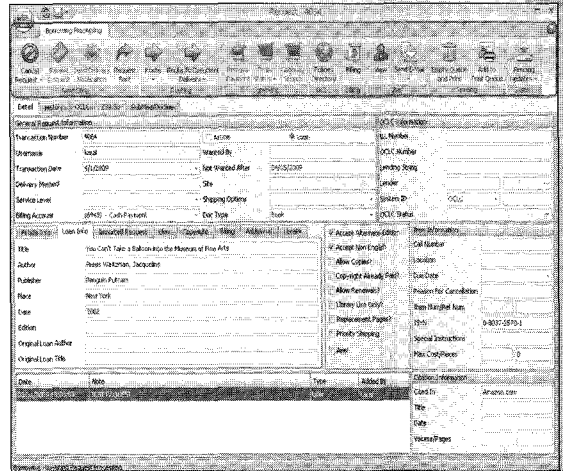
▲ 바로우 디렉트 시스템의 검색 결과 화면

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닥라인(DOCLINE) 네트워크와 콜로라도주립대학에서 개발한 자원공유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학도서관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래피드아이엘엘(RapidILL)이 그 예이다. 이 네트워크들은 학술지 논문만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닥라인의 경우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의학도서관인 만큼 긴급하게 필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고 따라서 도서관 간에 이루어지는 자료 제공의 속도 역시 빠르다.

래피드아이엘엘도 닥라인과 마찬가지로 참여도서관들이 각자 소장하고 있는 학술저널의 소장 정보를 상세하게 서버에 보내고 각 도서관에서 들어오는 신청 건수는 서버에서 자동으로 처리를 한다. 즉, 신청 도서관의 담당자가 소장 도서관을 찾아 신청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버에서 신청을 받아 자동으로 소장 도서관을 찾고 또한 한 도서관에만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적절하게 배분하는 과정을 거쳐 제공 도서관으로 신청을 보낸다. 제공 도서관에서는 이렇게 받은 신청건을 24시간 이내에 래피드엑스(Raid X)라는 웹기반의 전송 도구나 한국에도 잘 알려진 애리엘(Ariel), 혹은 뒤에 다시 설명할 오딧세이(Odyssey)같은 자료 전송 소프트웨어를 통해 신청 도서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이 네트워크 역시 OCLC와는 별개로 존재하는데 미국의 많은 연구도서관들이 참여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홍콩 지역의 도서관들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상호대차용 소프트웨어들

도서관의 다른 업무들도 그렇지만 상호대차 업무는 정보통신 기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무이다.



▲ 일리어드의 기본 윈도우 화면

그리고 원활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상호대차만을 위한 도구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다. OCLC를 통한 상호대차 신청업무는 웹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실제 많은 도서관에서는 상호대차신청 관리 프로그램을 따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이용자로부터 신청을 받는 일에서부터 자료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또 제공 도서관에 반납하는 일까지 상호대차의 전체 과정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고, 신청되는 자료들에 대한 통계자료로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들로서 대표적인 것이 클리오(CLIO)와 일리어드(ILLiad)인데 버지니아 테크의 도서관에서 상호대차를 담당하던 사서들이 주축이 되어 개발한 일리어드 소프트웨어는 몇 년 전 OCLC에서 인수하여 보급하면서 그 사용자층을 전세계로 넓히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이용자들의 상호대차 신청을 받는 웹 신청 양식에서부터 OCLC Worldcat을 검색하여 소장 도서관에 신청건을 보내는 일, 그리고 받은 자료를 이용자들에게 대출하고 대출된 자료를 다시 반납받아 제공 도서관으로 돌려보내는 일까지 상호

대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상호대차신청을 관리해야 하는 무엇보다 큰 이유는 연간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신청과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받는 자료 요청 건수가 매우 많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컬럼비아대학에서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상호대차 신청 건수는 32,575건이었고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제공 요청은 47,766건 이었다. 물론 한 도서관에 신청된 건수로서 이 정도는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경우에 속하지만 적어도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이라면 연간 최소한 1-2만 건 정도를 처리한다. 따라서 수작업으로 이 일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작업을 관리해 줄 응용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이용자들의 상호대차 신청건이 관리 프로그램에 데이터로 등록됨으로써 여러 가지 상세한 통계자료를 쉽게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특정 기간 동안 특정 학과의 특정 신분(대학원생 혹은 교수) 이용자들이 어떤 자료를 얼마나 신청했는지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찾아 볼 수 있고 청구기호 별로 어떤 분야의 자료가 얼마나 신청되었는지 볼 수 있으니 자관의 장서가 가진 약점과 장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장서개발을 담당하는 주제전문사서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논문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 역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사용하던 애리엘 프로그램은 최근 들어 그 사용 도서관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위에

서 설명한 일리어드 소프트웨어의 일부로 만들어진 오딧세이가 일리어드와 함께 사용자 층을 넓히고 있다. 더구나 오딧세이를 개발한 업체에서는 일리어드를 구입할 여유가 없는 도서관들을 위해 무료로 오딧세이 프로그램만을 보급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에서는 이것을 이용해 서로 자료를 교환하기도 한다. 물론 호환성의 문제 때문에 오딧세이와 애리엘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도 여전히 많다. 즉, 애리엘을 사용하는 도서관끼리만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고 오딧세이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도서관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함께 이용자와 도서관의 상호대차부서를 쉽게 이어주는 기술들도 이용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OpenURL 프로토콜을 이용한 자료 신청이다. 각종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한 이용자들은 국내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엑스리브리스사의 'SFX' 나 시리얼 솔루션 사의 '360페이지'를 통해 검색한 자료의 원문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자관에서 원문에 대한 접근권이 없거나 소장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상호대차를 통해 자료를 신청하게 되는데 SFX나 360페이지와 온라인 상호대차신청양식을 이어주는 것이 OpenURL 링크이다. OpenURL 속에는 이미 신청하려는 자료에 대한 모든 서지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링크를 통해 온라인 상호대차신청양식에 접속하는 경우 이용자는 별도로 서지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이미 모든 서지정보가 포함된 신청양식을 볼 수 있고 간단히 신청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신청 과정을 마칠 수 있다. 그래서 종종 한 이용자가 몇 시간 만에 수백건의 자료를 신청하는 일도 일어난다.

원문복사 서비스와 상호대차를 통한 수서

최근 들어 상호대차부서에서 새로이 이루어지고 있는 몇 가지 서비스들 중에는 자관의 자료를 스캔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원문복사(Document Delivery)서비스와 상호대차를 통해 신청된 자료를 타관에서 대출해 오기 보다는 직접 구입(Purchase on Demand)을 하는 서비스가 있다.

원문복사서비스의 경우는 이전부터 있었던 서비스이지만 스캐너의 본격적인 사용과 전자 배달의 이용으로 점점 더 많은 도서관에서 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고 또 무료로 그것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는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종이 저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도서관의 노력이 반영된 경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원격 강의나 비전통적인 학생, 즉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교육 현장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학교에서 2-3시간 차로 떨어진 거리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거나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는 도서관에서 종이 형태로 소장하고 있는 저널들을 접근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이 원문 복사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료를 신청하면 대개 24-48시간 이내에 PDF 형태로 배달된 논문을 도서관에 오지 않고도 볼 수 있으니 이만저만한 편리가 아니다.

더구나 원격 강의를 듣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도 늘어나고 있다. 멕시코의 오지에서 발굴작업을 하고 있는 연구원이 일주일에 한 번 인근 마을에 있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필자의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논문을 신청하거나 러시아

에 교환 교수로 떠난 교직원이 최근 출판된 책의 일부 챕터를 그곳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인터넷과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이용자와 같이 움직이는 도서관을 만들어 낸 셈이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또다른 서비스의 한 가지는 바로 상호대차를 통해 신청된 자료를 빌려오기 보다는 구입하는 서비스 인데 이는 상호대차를 통해 책을 빌려오는 것도 상당한 예산 지출이 수반된다는 현실에서 출발한 서비스이다. 물론 그렇다고 이용자들이 신청하는 모든 책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다. 자료의 성격에 따라 빌려오기 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더욱더 경제적인 경우 구입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자료의 가격과 구입 가능 여부, 배달 속도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마다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적용한다.

예를 들면 최근 5년 이내에 출판된 책으로서 대출비용을 요구하는 도서관에서만 빌려올 수 있는 책, 그리고 50달러 이하로 아마존을 통해 구입할 수 있고 1주일 이내에 배달이 가능한 책 등의 조건을 설정하고 그것에 맞는 책만을 구입하는 것이다. 이때에도 상호대차 담당자가 구입 결정을 내리는 곳도 있고 또 주제전문사서의 검토를 거친 후에 구입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구입한 책들은 도착과 함께 정리 부서로 넘겨져 목록에 등록된 후 자관의 대출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대출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상호대차시스템을 통해 대출한 후에 자관의 목록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이미 몇 년간 이 서비스를 이용한 퍼듀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구입한 책들이 실제 도서관에서 장서개발 정책에 따라 이용을 예상하고 구입한 책들에 비해 훨씬 더 이용 횟수가 더 많았다고 한다.

이음매 없고 빠른 서비스

상호대차와 원문복사는 형식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성격이 다른 서비스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도서관의 입장에서 그러할 뿐 이용자에게는 그렇지 않다. 자료를 요구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이 필요한 자료를 가장 빨리 입수하는 것이므로 그 자료가 어디에서 오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다. 실제 많은 도서관에서도 이런 점을 생각하여 굳이 두 가지 서비스를 따로 나누지 않고 한 부서에서 한꺼번에 제공하고 있고 최대한 이용자의 편의를 생각해서 서비스 정책을 수립한다.

예를 들어 필자의 도서관에는 자료가 없다고 생각하고 상호대차를 신청했는데 도서관에서 그 신청건을 처리하다가 자관에서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전통적인 상호대차서비스에서는 그 신청건을 취소하고 이용자에게 자관에 소장된 사실을 알리게 된다. 하지만 이른바 이음매 없는 서비스(Seamless service)의 관점에서는 신청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원문복사서비스로 그 신청을 옮겨서 이용자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관에 있다고 생각하여 원문복사를 신청한 자료가 실제로는 자관에 없을 경우 이용자에게 새로운 신청, 즉 상호대차신청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복사 신청건을 상호대차로 옮겨 처리한다. 이용자로서는 한 번만 신청을 하면 도서관에서 알아서 자료를 제공해주니 여간 편리한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을 쉽게 해 주는 것이 일리어드와 같은 상호대차관리 프로그램이다.

상호대차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소 중 한 가지는 상호대차를 통해 자

료를 입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최대한 신속하게 원하는 자료를 전달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용자들의 욕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자료를 신청하는 순간부터 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데 이른바 자동처리과정(Direct Request)이 그 한 예이다. 이 과정을 이용할 경우, 만일 이용자가 자료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ISBN이나 ISSN, 혹은 OCLC 번호를 입력했을 때는 상호대차 담당직원이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는 일 없이 도서관의 상호대차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청건을 OCLC나 래피드아이엘엘 등의 네트워크로 내보내고 각각의 서버는 자동으로 소장 도서관을 선택해서 신청건을 발송한다. 만일 이용자가 저녁 시간에 자료를 신청한 경우 이 기능이 작동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상호대차 담당자가 신청건을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는 일 없이 밤 사이에 이미 신청건은 제공 도서관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공 도서관으로부터 도착하는 자료를 이용자들에게 전달할 때도 시간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는데 그런 방법 중의 한 가지로서 이용자의 컴퓨터로 논문을 바로 전달(Desktop Delivery)한다는 서비스는 지난 5-6년 사이에 거의 모든 대학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이나 책의 챗터와 같은 복사자료의 경우 거의 99%가 PDF의 형태로 이용자들에게 전해진다. 대개의 경우는 도서관의 서버에 파일을 저장하고 이용자가 서버에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는 이메일 첨부파일로 보낼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상호대차를 통해 다른 도서관에서 받은 파일들을 자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서 소개한 일리어드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경우 상호대차담당 직원이 제공 도서관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PDF로 변환하는 일에서부터 서버에 저장하고 이용자에게 도착을 통보하는 일까지 한 두번의 클릭만으로 마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절차마저 줄이려는 시도도 있는데 제공 도서관을 “신뢰하는 제공자(trusted sender)”로 지정하면 제공 도서관에서 스캔한 파일이 신청 도서관 서버에 도착하는 즉시 담당 직원의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설정도 가능하다. 즉, 파일이 도착함과 동시에 서버에서는 이용자에게 도착 이메일을 보내고 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저장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이 기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제공 도서관에서 보낸 파일이 일반적인 업무 시간 후에 도착하는 경우 그 다음날 아침, 담당 직원이 처리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결국 최소한 12시간 이상의 시간을 절약하게 된다.

앞서 설명한 상호대차를 통한 수서 과정 역시 이용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시도의 한 가지이기도 하다. 베스트셀러와 같이 인기있는 도서일 경우 소장 도서관에서 이미 대출된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신청을 보내는 도서관에서는 제공이 가능한 도서관을 찾을 때 까지 신청건을 되풀이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그 책을 아예 구입한다면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도서관은 빠른 배달이 가능한 아마존과 같은 판매자를 이용하고 책이 도착해서 정리 작업을 할 때에도 특별한 처리 규정을 두어 다른 책들보다 빨리 이런 책들을 처리하여 도서관에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매우 ‘극단적’인 예 중에는 아마존과 같은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책을 보내고 이용자는 그 책을 이용한 후 도서관으로 반납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도서관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부 공공도서관에서 도입하기 시작한 상호대차 방식 중에는 한 도서관에서 다른 도서관으로 책을 보내고 도서관 담당자가 처리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공 도서관에서 직접 상대 도서관의 이용자에게 책을 우편으로 보내고 책에 포함된 반송 봉투를 이용해 이용자가 직접 제공 도서관으로 책을 반납하는 방식도 있다.

상호대차 사서들의 고민

상호대차를 담당하는 사서들이 만난 자리에서 종종 하는 농담 중의 한 가지는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 성공의 피해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라는 말이다. 즉, 상호대차서비스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용자들은 그것을 당연시하게 되고 또 전혀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 없이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되니 결국 상호대차 담당자들의 노력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불평아닌 불평을 하면서도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라면 미국 내는 물론이고 전세계의 도서관을 헤매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도서관의 고유한 업무 중 한 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상호대차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이용

자들이 도서관에서 책, 즉 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상호대차를 통해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면서 상호대차는 따로 비용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공기는 공짜로 마실 수 있는 것이니 말이다.

어지는 서비스이므로 그대로 따라 해서도 안 되고 또 따라 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경과 이유를 생각하면서, 만일 새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한국의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글에서 소개한 내용들은 한국의 도서관과는 다른 조건과 환경에서 이루

아래의 웹주소들은 이 글에서 이야기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들, 그리고 기타 미국 도서관의 상호대차서비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는 곳들이다.

▶ OCLC Worldcat Resource Sharing

<http://www.oclc.org/resourcesharing/>

OCLC Worldcat Resource Sharing 네트워크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 OCLC ILLiad 와 원제작자인 아틀라스 시스템의 웹페이지

<http://www.oclc.org/illiad>

<http://www.atlas-sys.com>

현재 ILLiad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OCLC의 웹페이지에서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고 동영상 매뉴얼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원제작자인 아틀라스 시스템의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오딧세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매년 3월 버지니아에서 열리는 일리어드 국제컨퍼런스에 관한 정보도 볼 수 있다.

▶ 래피드아이엘엘(RapidILL)과 닥라인(DOCLINE)

<http://rapidill.org/Default.aspx>

<http://www.nlm.nih.gov/docline>

래피드아이엘엘과 미국의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닥라인 시스템의 웹페이지에서는 이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의 리스트와 함께 가입 조건 및 사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닥라인의 웹페이지에서는 닥라인의 로고가 들어간 윈도우 바탕화면도 다운받을 수 있다.